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책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김 선 · 이무상 · 정명현 · 오희철

= Abstract =

A Study on Educational Accountability of Faculty in Medical Schools

Sun Kim, PhD, Moo-Sang Lee, MD, Myung-Hyun Chung, MD, Hee Choul Ohrr, M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A college or university faculty can be regarded as an educator, researcher, and service provi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 professors focusing on the educational duties and to propose the solution and strategy for accountability evaluation of medical school faculty.

Methods: The study used questionnaires which was developed in five big categories asking basic information of the faculty, educational activities, subject of the accountability evaluation, and the primary disturbing factor in accomplishing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The questionnaires were asked to 61 faculty members i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sults: The accountability importance of the medical school faculty was research (37.13%), teaching (31.80%), practice medicine (21.97%) and service (9.10%). Much weight was given for research (40.00%) and education (19.42%). The faculty concentrated mostly on delivering learning objectives as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The biggest problem affecting the faculty from concentrating on educational accountability was the over workload. Insufficient incentives and lack of interest in education came next. The faculty also showed dissatisfaction with the obscurity of accountability assessment in operation, uniformity of the measurement and the absence of objective assessment standard.

Conclusion: Medical schools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support of the faculty to focus on the educational activities. And when evaluating their accountability, the assessment standards need to be systematized and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specialities.

Key Words: Educational accountability, Educational activities

책임저자: 김 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361-5452, Fax: 02)364-5450
E-mail: skim@yumc.yonsei.ac.kr

서 론

일반적으로 교수는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능적 생산성을 높여 가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또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대학교수는 창조적 사고와 개혁의 근원지이며, 이념적 지도성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네 가지 사명을 갖고 그 존재 가치를 구현하여 왔다. 즉, ① 지식의 전수를 행동의 원리로 삼는 교육의 사명, ② 지식획득의 원리로 불리우는 연구의 사명, ③ 지식의 응용으로 대변되는 봉사의 사명, ④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창출하고 그 시범을 보이는 지적행동의 사명이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수는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연구하는 학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자로서 규정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주어진다. 교육은 교실 내이든 교실 밖이든 간에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일체의 행동을, 연구활동은 그의 학문적 생애에 있어서 과학적 삶을 살아가는데 관련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봉사활동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대학 내외의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에서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조직적 삶을 영위하고 대학 밖에서는 하나의 전문가로서 대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교수의 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는 측정과 평가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아주 민감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책무를 규명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적인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교수의 교육 책무를 어떻게 규명하고, 누가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일반 대학 교수의 책무와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 즉, ①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는 교육, 연구, 봉사 외에 진료라는 중요한 현실적인 책무 및 사명이 있다. ② 시장경쟁체제하에서 대학간의 전문과목 및 교수 개

인의 의료기술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③ 의과대학 교수는 현실적으로 환자 진료 및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④ 의과대학 내에 많은 전문과목 활동이 적절히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⑤ 일반 대학교수에 비해 학교뿐 아니라 병원 일로 인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⑥ 현실적으로 교수의 교육영역은(특히 임상교수인 경우) 의과대학 학생교육, 대학원 학생교육, 전공의 교육 및 지도, 그리고 전문의 교육 및 일반의 보수 교육 등으로 넓고 다차원적이다.

교수의 책무에 대한 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① 교수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연구, ② 교수의 역할, 책임, 권리 등을 분석하는 연구, ③ 교수의 자질 개발에 관한 연구, ④ 교수의 근무조건에 질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⑤ 교수들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등이 진행되어왔다. 상대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책무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그 당위성만 주장되었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부분에 대한 책무성 규명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책무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는 ① 교육, 연구, 진료, 봉사에 대한 중요성과 가중치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② 교육활동의 노력 정도와 중요도, ③ 교육부분 평가 목적에 관한 의견, ④ 교육부분 교수책무성에 방해를 주는 요인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분 책무성을 탐색하기 위한 본 설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Table 1. Variance Analysis and Standard Deviation of Accountability Importance by Speciality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Total	F
Research	45.74(14.85)	30.29(9.37)	37.13(14.27)	24.54***
Teaching	38.33(11.35)	26.62(7.15)	31.80(10.88)	24.20***
Medical Practice	6.30(12.45)	34.41(9.98)	21.97(17.90)	95.91***
Service	9.63(10.55)	8.68(3.95)	9.10(7.56)	.24

p*** < .001

Table 2. Variance Analysis and Standard Deviation of Accountability Importance by Position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ssisstant Professor	Total	F
Research	38.41(15.23)	34.78(11.23)	38.75(17.08)	37.13(14.27)	.49
Teaching	30.91(10.19)	32.17(11.66)	32.50(11.25)	31.80(10.88)	.12
Medical Practice	19.55(18.12)	24.78(17.09)	21.25(19.28)	21.97(17.90)	.49
Service	11.14(9.99)	8.26(5.56)	7.50(5.57)	9.10(7.56)	1.31

교수들이다. 기초의학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27명과 임상의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34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대상은 기초의학 교실 전체 교수와 임상의학 교실의 교육담당 교수와 교육 관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7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61부로 35%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의 회수 현황을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의학은 배포된 설문지 총 70부 중에서 27부가 회수되었고, 임상의학은 배포된 설문지 100부 중에서 34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교육부분 책무성에 관한 설문 도구는 연구자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고안되었다. 설문지 내용구성은 5개 영역, 즉 기본정보에 관한 질문(5문항), 교육활동 내용과 관련한 질문(40문항), 평가주체에 관한 질문(4문항), 교육부분 평가 목적에 관한 질문(1문항), 교육부분 교수책무성에 방해로 주는 요인 질문(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은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WIN

10.0 Version을 사용하였고,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전공분야와 직급별로 책무성에 관한 질문, 교육활동 내용의 노력정도와 중요도 질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육내용 평가방법과 평가주체에 관한 질문은 복수응답을 요구하는 설문이므로 전공분야와 직급별로 복수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육부분 교수책무성에 방해로 주는 요인 구성 설문지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공별 직급별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교육부분 교수책무성에 방해로 주는 요인에 관한 설문은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분류하였다.

결 과

1. 책무성의 중요도와 가중치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로서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전공별 응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기초의학 교수는 '연구(45.74%)'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임상의학 교수

Table 3. Variance Analysis and Standard Deviation of Accountability Weight by Speciality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Total	F
Research	50.19(16.90)	31.67(10.66)	40.00(16.54)	26.71***
Teaching	35.00(12.48)	24.85(7.95)	19.42(11.35)	14.61***
Medical Practice	6.15(12.03)	34.85(11.21)	22.20(18.39)	89.34***
Service	8.89(10.50)	9.24(6.14)	9.08(8.31)	.03

p*** < .001

Table 4. Variance Analysis and Standard Deviation of Accountability Weight by Position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ssisstant Professor	Total	F
Research	42.05(17.50)	36.14(11.33)	42.50(20.82)	40.00(16.54)	.95
Teaching	28.64(11.25)	31.59(12.09)	27.50(10.65)	29.42(11.35)	.68
Medical Practice	19.52(16.58)	24.55(17.92)	22.50(21.76)	22.20(18.39)	.39
Service	10.68(10.27)	8.64(7.74)	7.50(5.77)	9.08(8.31)	.72

는 ‘진료(34.41%)’를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책무성 중요도를 살펴보면 ‘연구(37.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31.80%), 진료(21.97%), 봉사(9.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간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한 결과, 연구, 교육, 진료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간에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간 책무성의 중요도 차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Table 1).

교수의 책무로서의 중요도를 각 직급별로 살펴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간 책무성 중요도 순위는 일치하고 있다. 즉, 직급별 책무성 중요도는 ‘연구(37.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 진료, 봉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량분석 결과, 직급별 책무성 중요도 차이는 없었으나 전공분야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교수의 책무로서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전공별 응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기초의학 교수는 ‘연구(50.19%)’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임상의학 교수는 ‘진료(34.85%)’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연구(4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진료(22.20%), 교육(19.42%), 봉사(9.08%) 순이었다. 유의미 검증에서는 연구, 교육, 진료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간에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간 책무성 가중치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각 직급별 주어진 가중치(%)에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모두 ‘연구(40.00%)’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29.42%)’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전공별 책무성 가중치에서 ‘진료’를 두 번째로 비중 높게 본 결과와는 다르다. 유의미 검증에서는 직급별 책무성 가중치에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의 책무성 가중치는 직급별간에는 차이가 없고 전공분야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5. Variance Analysis and Standard Deviation of Effort on Educational Activity by Speciality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Total	F
Course Schedule	3.07(1.00)	2.59(1.16)	2.80(1.11)	2.99
Preparation for lecture	4.15(.77)	3.50(1.05)	3.79(.99)	7.19**
Developing and improving teaching materials	3.44(.93)	2.91(.83)	3.15(.91)	5.55*
Effective use of teaching materials	3.52(.85)	3.18(.87)	3.33(.87)	2.38
Organizing and systematizing the course	3.81(.79)	3.44(.86)	3.61(.84)	3.06
Acutely delivering the learning objectives	4.00(.73)	4.00(.82)	4.00(.77)	.00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3.52(.98)	3.44(.96)	3.48(.96)	.09
Encourag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class	3.11(.89)	3.26(1.14)	3.20(1.03)	.33
Setting questions for examination	3.23(.95)	3.36(1.03)	3.31(.99)	.26
Grading examination papers	2.85(1.19)	2.50(1.19)	2.65(1.19)	1.25
Student counseling	2.52(1.01)	2.21(1.01)	2.34(1.01)	1.43

p* < .05, p*** < .001

2. 교육활동내용

교육활동에 관한 11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노력 정도를 ‘매우 적음’은 1점으로, ‘매우 많음’은 5점으로 한 전공별 응답 평균을 비교해보면, 기초의학에서는 교과목내용 준비(4.15)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임상의학에서는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00)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노력정도는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되는 것은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00)’만 해당되므로 실제로 교수들이 교육활동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전공별 응답 간 차이의 유의미도 분석결과, 기초의학은 임상의학보다 ‘교과목내용 준비’와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에 더 노력하고 있었다.

직급별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교수와 조교수는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14)이, 부교수는 교과목내용 준비(3.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급별 교육활동의 노력 정도를 살펴보면,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과목내용 준비(3.79), 강의 조직·체계

성(3.6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

교육활동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Table 6)에서는 기초의학이나 임상의학이나 동일하게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56)’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은 임상학과 기초의학에서 실제 다른 교육활동보다 많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활동 중요도 중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되는 것은 일곱개 영역, 즉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61), 강의 조직·체계성(4.30), 교과목내용 준비(4.28), 교수·학생의 상호작용(4.25),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4.23), 수업자료의 효과적 활용(4.13),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4.08)이다. 이와 같이 교수들이 실제 교육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었지만, 일곱개 교육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다고 사려된다. 유의미 검증에서는 기초의학보다 임상의학에서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교육활동에 관한 노력정도에 대한 직급별 응답을 살펴보면, 교수는 교과목내용 준비(4.23)에, 부교수와 조교수는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4.65)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학습

Table 6. Variance Analysis and Standard Deviation of Importance of Educational Activity by Speciality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Total	F
Course Schedule	3.59(1.01)	3.76(1.02)	3.69(1.01)	.43
Preparation for class	4.33(.96)	4.24(.70)	4.28(.82)	.21
Developing and improving teaching materials	4.22(.80)	4.24(.82)	4.23(.80)	.00
Effective use of teaching materials	4.11(.80)	4.15(.74)	4.13(.76)	.03
Organizing and systematizing the course	4.19(.92)	4.38(.74)	4.30(.82)	.86
Acutely delivering the learning objectives	4.56(.70)	4.65(.49)	4.61(.59)	.36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4.15(.77)	4.32(.77)	4.25(.77)	.78
Encourag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class	3.78(.75)	4.32(.77)	4.08(.80)	7.75**
Setting questions for examination	3.48(.75)	3.82(.83)	3.67(.81)	2.75
Grading examination papers	3.30(.72)	3.38(.85)	3.34(.79)	.18
Student counseling	3.44(.97)	3.76(1.00)	3.62(.99)	1.49

p** < .01

목표의 명확한 전달(4.6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강의 조직·체계성(4.30), 교과목내용 준비(4.28), 교수-학생의 상호작용(4.25),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4.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활동 각각의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 즉, 교수자의 교육활동에 대해 평가자가 직접 관찰하는 직접관찰, 교육활동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 교수자 스스로 평가하여 보고하는 자기보고 평가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순위로 표시한 자료는 복수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간에 적합한 평가방법의 선호도 순위는 일치하고 있다. 첫째,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 시험문제 출제와 시험문제 채점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자기보고'가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나타났다(Table 7). 둘째, 수업자료의 효과적 활용, 강의 조직·체계성,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를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직접관찰'이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 시험문제 출제와 시험문제 채점을 위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는 '자기보고'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업자료의 효과적 활용, 강의 조직·체계성,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를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직접관찰'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방법은 교육활동 각 내용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 각각의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 즉,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프, 자기보고 중 적합한 방법을 순위로 표시한 자료를 복수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의 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직급별 평가방법 순위가 일치하는 것으로는 첫째,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를 위한 적합한 평가방법은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프, 자기보고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의계획서, 시험문제 출제와 시험문제 채점을 위한 적합한 평가방법은 자기보고,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급별 평가방법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교수, 부교수는 직접관찰, 자기보고, 비디오 테이프 순으로 나타난 반면, 조교수는 자기보고,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프 순으로

Table 7. Educational Activity Assessment Method by Speciality Frequency (%)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Total
Course Schedule	Direct Observation	13(22.4)	14(24.1)	27(46.6)
	Video tape	1(1.7)	4(6.9)	5(8.6)
	Self-report	17(29.3)	22(37.9)	39(67.2)
Preparation for class	Direct Observation	13(21.7)	18(30.0)	31(51.7)
	Video tape	7(11.7)	9(15.0)	16(26.7)
	Self-report	17(28.3)	19(31.7)	36(60.0)
Developing and improving teaching materials	Direct Observation	13(21.7)	19(31.7)	32(53.3)
	Video tape	12(20.0)	17(28.3)	29(48.3)
	Self-report	12(20.0)	13(21.7)	25(41.7)
Effective use of teaching materials	Direct Observation	13(21.3)	22(36.1)	35(57.4)
	Video tape	12(19.7)	18(29.5)	30(49.2)
	Self-report	9(14.8)	9(14.8)	18(29.5)
Organizing and systematizing the course	Direct Observation	15(24.6)	24(39.3)	39(63.9)
	Video tape	13(21.3)	19(31.1)	32(52.5)
	Self-report	8(13.1)	8(13.1)	16(26.2)
Acutely delivering the learning objectives	Direct Observation	16(26.2)	25(41.0)	41(67.2)
	Video tape	12(19.7)	18(29.5)	30(9.2)
	Self-report	8(13.1)	7(11.5)	15(24.6)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Direct Observation	17(27.9)	23(37.7)	40(65.6)
	Video tape	9(14.8)	14(23.0)	23(37.7)
	Self-report	7(11.5)	9(14.8)	16(26.2)
Encourag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class	Direct Observation	10(16.9)	16(27.1)	26(44.1)
	Video tape	1(1.7)	4(6.8)	5(8.5)
	Self-report	17(28.8)	22(37.3)	39(66.1)
Setting questions for examination	Direct Observation	8(13.6)	12(20.3)	20(33.9)
	Video tape	1(1.7)	3(5.1)	4(6.8)
	Self-report	19(32.2)	25(42.4)	44(74.6)

로 선호하고 있다. 둘째, 수업자료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교수, 부교수는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프, 자기보고 순으로, 조교수는 비디오 테이프, 자기보고, 직접관찰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셋째, 강의 조직·체계성에 관한 적합한 평가방법으로는 교수, 조교수는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프, 자기보고 순으로, 부교수는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

프, 자기보고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넷째,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에 관한 적합한 평가방법으로는 교수, 조교수는 직접관찰, 비디오 테이프, 자기보고 순으로, 부교수는 비디오 테이프, 직접관찰, 자기보고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직업별 평가방법 결과는 전공별 평가방법 선호도와 일치하고 있다. 즉, 강의계획

Table 8. The Suitability of Evaluation Subject by Speciality Frequency (%)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Total
Teaching method	Him/herself	15(24.6)	13(21.3)	28(45.9)
	Student	22(36.1)	29(47.5)	51(83.6)
	Peer	10(16.4)	10(16.4)	20(32.8)
	Head professor or coordinator	8(13.1)	14(23.0)	22(36.1)
Encouraging students' participation	Him/herself	11(18.0)	11(18.0)	22(36.1)
	Student	24(39.3)	28(45.9)	52(85.2)
	Peer	9(14.8)	13(21.3)	22(36.1)
	Head professor or coordinator	7(11.5)	11(18.0)	18(29.5)
Student assessment	Him/herself	18(30.0)	22(36.7)	40(66.7)
	Student	6(10.0)	11(18.3)	17(28.3)
	Peer	6(10.0)	12(20.0)	18(30.0)
	Head professor or coordinator	8(13.3)	14(23.3)	22(36.7)
Student counseling	Him/herself	18(30.0)	21(35.0)	39(65.0)
	Student	12(20.0)	14(23.3)	26(43.3)
	Peer	4(6.7)	14(23.3)	20(33.3)
	Head professor or coordinator	6(10.0)	14(23.3)	20(33.3)

서,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 시험문제 출제와 시험문제 채점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자기보고’ 방식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수업자료의 효과적 활용, 강의 조직·체계성,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를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직접관찰’ 방식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3. 평가주체

교육활동의 평가주체 즉, 본인, 학생, 동료,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중 적합한 평가 주체를 전공별 순위로 표시한 자료를 근거로 복수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공별로 적합한 평가 주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방법에 관해 기초의학에서는 ‘학생’을 가장 적합한 평가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 동료,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임상의학에서도 ‘학생’을 가장 적합한 평가 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 본인,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동기유발에 관해 기초의학에서는 ‘학생’을 가장 적합한 평가 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 동료,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임상의학에서도 ‘학생’을 가장 적합한 평가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 본인,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평가에 관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모두 ‘본인’을

Table 9. The Purpose of the Assessment by Speciality and Position

		Develop instructional ability	An index to equalize the workload	Produce outstanding medical scientists by improving education	Total	χ^2
Speciality	Basic Medicine	18(30.5)	2(3.4)	7(11.9)	27(45.8)	4.24
	Clinical Medicine	14(23.7)	8(13.6)	10(16.9)	32(54.2)	
	Total	32(54.2)	10(13.6)	17(28.8)	59(100.0)	
Position	Professor	12(20.3)	2(3.4)	6(10.2)	20(33.9)	5.73
	Associate Professor	15(25.4)	3(5.1)	5(8.5)	23(39.0)	
	Assisstant Professor	5(8.5)	5(8.5)	6(10.2)	16(27.1)	
	Total	32(54.2)	10(16.9)	17(28.8)	59(100.0)	

가장 적합한 평가 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상담에 관해 기초의학에서는 ‘본인’가장 적합한 평가 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동료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임상의학에서도 ‘본인’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 동료, 본인, 주임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방법, 학습동기유발에 관한 가장 적합한 평가주체로는 ‘학생’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학생평가와 학생상담에 관한 가장 적합한 평가주체로는 ‘본인’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평가 주체를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직급에 상관없이 선호도 순위는 일치했다. 즉, 교수방법과 학습동기유발에 관한 적합한 평가주체로는 ‘학생’을 선호하였고, 학생평가와 학생상담에 관한 적합한 평가주체로는 ‘본인’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별 평가주체 적합성 결과와 일치했다.

4. 교육부분 평가목적

교육부분 평가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전공별로 교육부분

평가목적을 살펴보면, ‘교수의 교육부분 능력개발’이 기초(30.5%)의학과 임상(23.7%)의학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학의 교육분야 발전을 통한 우수의학자 배출’이 기초의학(11.9%)과 임상의학(16.9%)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9)에서 직급별로 교육부분 평가목적을 살펴보면 ‘교수의 교육부분 능력개발’은 교수(20.3%)와 부교수(25.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의 교육분야 발전을 통한 우수의학자 배출에서 교수(10.2%)과 부교수(8.5)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교수는 평가목적 항목간에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분 평가목적은 ‘교수의 교육부분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었다. 전공별, 직급별에 따른 평가 목적을 chi-square 검증을 한 결과 전공별, 직급별에 대한 반응빈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5. 교육부분 책무성에 방해를 주는 이유

현재 교육부분 책무성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설문에 응답한 자는 총 43명이었다. 응답 내용을 빈도가 많은 순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교육부분 책무성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로는 과도한 행정 업무, 교육의

Table 10. Reasons for Overlooking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Reasons	No. of response
1. Over workload (administration, practicing medicine, research, routine work)	25
2. Insufficient incentives and lack of interest in education	11
3. Increasing responsibility for practicing medicine and making profits	9
4.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research activity	6
5. Frequent meetings in the campus	3
6. Lack of interest in student education	3
7. Lack of time	2
8. Lack of institutional provision (inefficiency of assigning workload due to the lack of track system)	2
9. Assigning responsibility of teaching	2
10. Unreasonable to assess uniformly the different instruction time according to the teachers	1
11. Lack of assisstant manpower	1
12. Idleness	1

Table 11. Reasons for Judging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Assessment Method Inadequate

Reasons	No. of response
1. Obscurity of operating educational accountability assesement	7
2. Uniformity of assessment (need distinction between basic and clinical medicine)	6
3. Need to set up weight in systemization and assessment	6
4. Need a system to assign professors disregarding teaching as instructors	6
5. Difficulty of converting the assessment result in numbers	4
6. Absence of an objective assessment standard	4
7. Absence of student evaluation	3
8. Absence of an objective assessment in measuring accountability	2
9. Need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professor	1
10. Need to consider the area excluded in the assessment	1
11. Need to focus on fostering the condition to assess	1

경시성 및 보상체제 미흡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의 교육 책무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교육부분 교수 책무성 평가방법이 부적절하

다면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설문에 응답한 자는 총 39명이었다. 응답 내용을 빈도가 많은 순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교육부분 교수 책무성 평가방법이 부적절한 이유 및 요구로는 교육 책무성 평가 시행여부의 불분명, 평가의 획

일성, 계열화와 평가의 가중치 설정 요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책무성 평가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와 임상 분야에 따른 평가기준의 계열화 및 차별화뿐만 아니라 책무성 평가에 관한 홍보도 요구된다고 본다.

고찰 및 제언

본 연구는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부분 책무성을 조사하는 기초 연구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분석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교육책무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과 적합한 평가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의 교수의 책무성 평가방안 수립시 전공분야별로 중요도와 가중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학 교수는 '연구'를, 임상의학 교수는 '진료'를 가장 중요한 책무로서 가중치를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책무성 전체 중요도는 연구 > 교육 > 진료 > 봉사 순으로, 책무성 전체 가중치는 연구 > 진료 > 교육 > 봉사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 책무성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나 교육보다 진료에 더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노력정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되는 것은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만 해당되나, 교육활동 중요도에서는 7개 교육활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실제로 교수들은 교육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활동 중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의 노력정도와 중요도 분석결과로 볼 때,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강의 조직·체계성, 교과목내용 준비 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결과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학

습목표임을 확인해 준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서 학습목표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세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활동 평가방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에 관한 적합한 평가방법을 분석한 결과 첫째,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개발 및 개선,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위한 적합한 평가방법으로는 '자기보고'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수업자료의 효과적 활용, 강의 조직·체계성, 학습목표의 명확한 전달,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를 위한 적합한 평가방법으로는 '직접관찰'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그 내용과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1995)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교수의 교육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활동이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률적인 평가방법보다 다양한 평가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활동에 적합한 평가주체를 선정해 평가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학습동기유발에 관한 가장 적합한 평가주체로는 '학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반면, 교수방법, 학생평가와 학생상담의 적합한 평가주체로는 '본인'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대학에 주는 시사점은 교육활동에 관해 누가 평가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연구와 자료분석을 토대로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부분 평가결과는 교수의 교육부분 능력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교수의 책무 중 교육부분의 평가 목적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교수의 교육부분 능력개발에 활용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부분에서의 평가는 승진과 같은 대학 행정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교육부분 책무성 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분 책무성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 업무, 교육의 경시성 및 보상체제 미흡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의 교육 책무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보상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기욱: 대학 교직원 평가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김일순: 전임교수의 책임과 승진. 의과대학의 교수 제도-구분과 역할 중에서, 제3차 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 1995.
- 연세대학교 교수발전제도 연구위원회: 세계적인 연구·교육기관으로의 도약. 연세대학교 교수발전제도 연구보고서. 1994.
-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평가·보상·지원체제로서의 교수발전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1993.
- 이성호: “교수업적 평가의 본질과 방법”, 「대학교육의 갈등」, 서울: 느티나무. 1992.
- 이성호: 한국의 대학교수. 서울: 학지사. 1992.
- 이성호: 세계의 대학교수. 서울: 문이당. 1995.
- 이정복: 교수평가. 1993년 겨울철 의학교육세미나 보고서, p42-67. 1993.
- 이종승 외 4인: 대학교수의 임용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제90-19-9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조직과 운영, 자료 89-5-5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 현기욱: 대학 교직원 평가론. 교육과학사. 1993.
- 홍창기: 교수직의 구분: 사명과 역할. 의과대학의 교수제도-구분과 역할 중에서, 제3차 의학교육 합동 학술대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 1995.
- Boyer EL, Altbach PG, & Whitelaw MJ: *The Academic Profess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94.
- Braskamp LA & Ory JC: *Assessing Faculty Work, Jossey-Bass Inc., Pub.* 1994.
- Cashin WE: *Developing in effective faculty evaluation system. Division of Continuing Educ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1996.
- Frank TS: *Faculty Evaluation and Development: Mc Guie C, Foley R, Dora A, and Richard R, In Handbook of Health Professions Evaluation, Jossey Bass.* 1983.
- Gastel B: *An award program for teaching excellence. Academic Medicine* 66:192-193, 1991.
- Jacobs MB: *Faculty Status for Clinician-Educators: Guidelines for evaluation an promotion, Academic Medicine* 68:126-128, 1993.
- Lovejoy FH, & Clark MB: *A promotion ladder for teachers at Harvard Medical School: Experience and challenges. Academic Medicine,* 70:1079-1086, 1995.
- Ory JC: *Teaching and it's evaluation: A handbook of resources. Office of Instructional Resources,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5.
- Rippey RM: *The evaluation of Teaching in Medical Schools, Springer Publishing Co. New York.* 1981.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riteria and Guidelines for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Faculty* 1996.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Evaluating Teaching in the College of Medicine: A Handbook.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1995.